



제목	The Ecstatic Poetic Tradition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Mc Farland Publishing
발행일	2014. 5. 12.
저자	D. J. Moores
출판도시	McFarland
페이지수	264
ISBN 또는 ISSN	978-0786478163

내용 요약

저자 모어스는 이 책에서 황홀한 상태에서의 의식적인 흐름과 황홀경을 노래한 시적 전통을 역사적으로 조명하였다. 이 책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 저자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와 우연, 그리고 학문적인 동기가 있었음을 밝힌다. 주제에 부합하는 작품을 고르기 위해 저자는 루미, 워즈워스, 휘트먼, 디킨슨, 그리고 타고르를 초대하고 이들의 대표적 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그 과정에서 심리, 종교, 철학, 미학, 사회학, 역사학 등에서 차용한 다양하고 다층적인 개념을 독창적으로 활용한다. 또한 중세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는 것에 대해 그 기원을 고대에서 찾는다.

이 책은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엑스타시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을 올리면서 의식의 황홀한 상태를 다루고, 제2부에서는 엑스타시의 기원과 전개 등을 역사적으로 개괄하면서 엑스타시 관련 비서구적인 근대시를 소개하며, 제3부에서는 다섯 명의 시인을 소환하고 루미의 세마춤, 워즈워드의 상상력, 휘트먼의 육체적 엑스타시, 디킨슨의 분열된 마음, 타고르의 동양의 현자를 주제로 삼았다. 그리고 제4부에서는 황홀함과 행복감 등을 함축적으로 비판한다. 모어스는 이 책의 서막을 열면서 엑스타시가 기쁨, 즐거움, 흐름, 상승, 숭고 등과 다르고, 이러한 개념으로 엑스타시를 대신할 수 없으며, 이 모든 것의 절정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개념임을 밝힌다.

모어스가 초대한 시인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마음이 깨어나는 순간 견잡을 수 없는 황홀감에 빠져드는 인간을 노래하고 찬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은 지극히 종교적이다. 힌두교와 불교 신자들, 히브리 예언자들과 기독교 복음 전파자, 수피 신비주의자들을 총망라하고, 인류의 역사와 문화를 아우르며, 다양한 전통을 광범위하게 포함한다.